YTN 社報

• 발　　행 : YTN　　• 편　　집 : 홍보팀
• 대표전화 : 398-8000　　• FAX : 398-8789
• 제　　보 : 398-8282(빨리빨리)　398-8585(바로바로)
• 휴대폰 YTN뉴스 청취 : 200-2424

2003년 11월 7일 | www.ytn.co.kr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5-1 | 제 44호

베이징 올림픽 티켓사업권 획득

YTN과 NHN이 공동 출자한 "태극 I&E"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티켓 판매대행사업권을 사실상 획득했다.

이와 관련해 표완수 사장은 김범수 NHN 사장과 함께 지난 28일 베이징 중화세기단에서 베이징 올림픽 티켓 판매권을 보유한 가화문화경기유한공사(대표 갈립지, 이하 가화경기)와 한중 합작법인 '가화표무유한공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합작법인은 YTN과 가화그룹간의 두터운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에서 선진적인 문화예술 유통망이 구축되고, 나아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립된 가화표무유한공사는 내년부터 베이징내 영화, 공연, 스포츠 경기, 전시회, 여행에 이르는 각종 문화 및 레저 행사와 관련된 티켓판매대행서비스는 물론 공연 정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여기에서 쌓인 사업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베이징올림픽의 온라인 티켓판매대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가화표무유한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국내 최고의 티켓 판매 기술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맥스무비와 NHN의 기술지원 아래 콜 센터와 중앙시스템 등 기본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베이징 올림픽 티켓판매서비스에 대비해 2006년까지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다국어 시스템을 중국 현지 사정에 맞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YTN은 지난 22일 NHN과 함께 중국 가화표무유한공사에 대한 출자와 기술을 책임지고 진행할 국내 합작법인 "태극I&E"(중국명 太極網, 대표 최휘영)를 설립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가화경기와 중국 내 방송프로그램 및 문화콘텐츠 유통을 담당할 합자법인 "범아연합문화자순유한공사(A.C.E.)" 설립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중국의 티켓 판매 시장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공연과 경기, 전시회 등만 해도 연간 2만회가 넘을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티켓판매대행사업은 베이징에서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뉴스

YTN 매체 설명회

10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매체 설명회. YTN 소개 영상과 표완수 사장 인사말, TNS미디어의 시청자 행태 조사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사옥 공간인테리어

신사옥 인테리어 디자인 입찰에 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이들 업체가 제안한 3D구성도와 설계안들을 사내 전문가 그룹인 그래픽팀 등이 정밀 검토하고 있다.

10월호 HEAD LINE

|2| ▶ 신사옥 인테리어 시공 장비도입 등 발주 마무리
|3| ▶ 신임 보도국장 인터뷰
|4| ▶ 특종상 금상 취재기 - 끈질긴 취재 끝에 낚은 대어
▶ 특종상 동상 취재기 - 수습기자, 낙종 딛고 특종 영광
|5| ▶ 돌발영상 제작기- '돌발' 에도 원조가 있다?
▶ '가화표무유한공사' 설립 계약식
|6| ▶ 제 5회 YTN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총평
▶ 최우수 작품상 「아버지의 울림, 북」제작기
|7| ▶ YTN 가족 - "YTN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 일본 출장기 - 디지털장비, '소니냐 파나소닉이냐'
|8| ▶ 프로그램 탐방 - '과학과 미래'
▶ 새로 선보인 프로그램 - 「클릭! 자동차 생활」

신사옥

인테리어 입찰 등 이전작업 본격화

YTN 제2창사의 밑거름이 될 신사옥 이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옥추진위원회는 지난 두달여동안 사내 실무팀 논의를 통해 공간확정을 매듭지은데 이어 10월부터 공사업체입찰과 장비발주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사옥팀은 우선 본사가 입주할 신사옥 17층에서 20층까지의 인테리어 시공을 맡을 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9일 관련업체들을 불러 모아 입찰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입찰 설명회에는 공간시설팀에서 정리한 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도급실적을 보유하고 오피스 인테리어업체로서의 전문성을 지닌 중견업체 등 8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인테리어 시공은 방송시설인 20층 스튜디오와 주부조 등을 제외한 사무공간이 대상이 된다. 업체의 제안을 받아 예산의 경제성과 디자인의 효율성을 검토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제출된 제안서는 사내 심사위원단 9명의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며 11월 중 시공에 들어간다.

이번 입찰과 함께 20층 스튜디오와 주부조 등 방송기반시설에 대한 전문 업체 선정도 진행 중이다. 마찬가지로 입찰을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방송화면에 반영되는 부분인 만큼 기술국과 방송시설팀을 중심으로 철저한 점검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장비도입팀도 신사옥 방송이전을 위한 주부조 신규장비 설치와 현 장비의 이설을 담당할 SI (System Integration) 업체 입찰에 들어간 상태. 11월 중 업체가 선정되면 신규장비 발주와 함께 2월말까지 신사옥 장비세팅을 마칠 예정이다. 사옥팀이 기술국과 함께 연구, 추진하던 디지털 뉴스룸 시스템 도입은 아직까지 시기와 범위에 대해 사내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스룸 시스템은 공중파 방송들이 이미 속속 도입하고 있어 우리도 보도국과 기술국 등 사용자 중심의 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해 하루빨리 도입일정과 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옥팀은 또 사원 복리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운용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사옥 지하 1층에 사내식당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메이저 4개사의 입찰 제안서를 받은 상태. 하지만 식당이 들어설 수 있는 지하 1층이 아케이드로 설계돼 대형식당의 입지조건인 방화, 급배수, 환기, 가스배관 등 기반시설 공사비와 임대료 등 수억대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어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옥이전 프로젝트에는 사원들이 함께하는 각종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신사옥 이름 공모'에서부터 'YTN 10년 발자취' 사진공모전에는 현재 사옥 전경과 방송장면 등 YTN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사옥에 대한 사원들의 궁금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11월 중 사원을 대상으로 한 신사옥 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이제 남대문 신사옥은 하루가 다르게 YTN의 새 보금자리로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YTN 단신

■ 타워소식

도시가스 시설 완비해 환경친화적 관람여건 갖춰

YTN서울타워가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완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갖추었다.

YTN서울타워는 10월 9일 도시가스 인입과 정압기 설치 공사가 끝남에 따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화식을 열고, 타워와 방문객들을 위한 안전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다. 서울타워는 지난 1971년 종합전파탑으로 건설된 후 1980년 일반에 공개됐으며 지금까지 연인원 2,26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았으나, 경유와 LPG를 난방 등의 연료로 사용해 환경오염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해발 480m인 남산 서울타워까지 도시가스를 끌어올리는 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총 사업비 5억4천3백만원이 투입됐다.

TBS사장 방문

TBS의 이노우에 히로시 사장과 오카모토 다카하루 보도국장 등이 9월 22일 YTN을 방문했다.

YTN 표완수 사장과 TBS의 이노우에 히로시 사장은 다채널 ·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한국의 뉴스 채널인 YTN과 일본의 유력한 민영방송인 TBS가 서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게 시 판

■ 포 상

특종상 금상 김승재(사회1부) 에이즈 혈액, 수혈과 의약품 원료로 사용 보도
이병식(사회2부) 태풍 '매미' 상륙 당시 노 대통령 연극관람 보도

특종상 동상 김진우(경제부) WTO 각료회의장에서 이경해氏 사망 사건 보도
송세혁(사회1부), 김태운(영상취재부) 북부경찰서, 취객 보복 폭행 사건 보도
차윤조 차장대우(문화과학부) 한 · 일, D-TV 전파 월경 대립 보도

■ 공로상

전기호 · 박태근 · 유성래(대구지국) 대구 U-대회 방송 및 회사 수익증대 공로 ·····10. 1

■ 입사

최완식 총무부(강릉지국 파견) ·····10. 20

■ 퇴사

이민호(타워사업국) ·····10. 20
황광모(영상취재부)
최덕수(국제부) ·····10. 27
이원중(타워사업국) ·····10. 31

■ 전보

정재훈 편집2팀
유충섭 경제부
박순표 사회1부
보도국 인턴사원 김세호, 이대건, 홍선기, 송세혁, 김재형, 김수진, 박소정, 전가영, 최영주, 윤현숙, 이승준, 이동규
기술국 인턴사원 최영훈, 남궁세은
마케팅국 인턴사원 지민근
任 수습사원 ·····9. 23字
주헌득 사옥추진팀 파견
백승하 매체관리팀 파견 ·····9. 30字
김관상 마케팅국장
강갑출 보도국장(국장대우)
고광남 타워사업국장(이사대우)
이한상 미디어국장(국장대우)
박감묵 보도국 방송위원(부국장) ·····10. 2字

■ 부음

김형근 차장대우(국제부) 빙모상 ·····10. 4
이기래(중계부) 모친상 ·····10. 20
김영욱(영상취재부)부친상 ·····10. 30

■ 회갑

여승구(전주지국) 장인 ·····10. 8

■ 결혼

남규덕(타워사업국) 자녀결혼 ·····10. 11
송세혁(보도국) 본인결혼 ·····10. 25

보도국장 인터뷰

"균형감각 있는 바른 보도로 시청률을 올리자!"

보도국장 복수추천제에 따라 10월 2일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강갑출 보도국장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김형근 기협 YTN지회장이 들어봤다.

1. 앞으로 정치권 외압이나 광고주 외압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보도국을 운영할 것인가?

YTN은 뉴스전문채널인 만큼 보도와 관련해 외부로부터의 청탁성 전화나 광고주로부터 이른바 압력성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럴 때 보도국장으로서는 큰 틀에서 원칙이란 잣대를 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원칙이란 잣대를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처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전문채널로서의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보도국장은 뉴스와 관련한 일을 빨리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 기자들 인사와 관련해 내외근 순환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다양한 출입처를 경험하지 못한데 따른 불만이 있을 게 사실이다. 또 지역인사와 승진인사 등 인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인사와 관련해 어떤 원칙과 제도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이룰 것인가?

2년 정도의 내외근 순환이라는 큰틀아래 능력과 적성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해 부서 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원으로서 상호 화합하는 정도를 고려하고자 한다. 인사 시기는 크게 봄, 가을 두 번 정기 인사를 정례화 하도록 하겠다. 긴급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례화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 승진에 있어서는 조직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것보다 언론계 특성을 감안해 기자 경력과 능력, 리더십,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신입기자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뽑고 이 가운데 일정수를 일정기간 지역에 순환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따라 5년 미만의 경력기자를 현지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취재부의 숙원사안인 사운드 맨의 충원에도 신경 써 사운드 녹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3. 내년 3월 사옥이전을 계기로 제 2의 창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때맞춰 전반적인 뉴스와 화면상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콘텐츠를 변화시킬 생각인가?

내년 3월 사옥을 이전하게 되면 화면상의 질적 변화는 필연이라고 본다. 우선 새 사옥에서는 방송사 규모에 맞는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어 카메라 워킹이 자유롭고 높이와 일정거리가 유지돼 카메라 심도도 제대로 표출되는 등 지금 보다는 양질의 스튜디오 화면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는 24시간 뉴스전문채널답게 시청자가 언제라도 YTN을 틀면 곧바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따라서 콘텐츠도 따근따근한 뉴스상품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계차를 동원하고 전화연결을 시도하며 스튜디오 출연을 일상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게 현장뉴스를 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 있고 전문성 있는 앵커를 기용해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화면의 현장성을 강조해 살아있는 뉴스, 톡톡 튀는 뉴스를 만들고자 한다. NOTE BOOK PC에서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영상전송장치를 도입해 해외에서나 지역 그리고 출입처 등에서 신속하게 뉴스화면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영상자료의 비축 등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은 필연적일 것이다. 저장에서부터 송출하는데 까지 네트워크화해서 TAPE 없이도 방송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뉴스룸이다. ONE SOURCE MULTI USER로 통용되는 DIGITAL NEWSROOM은 신 사옥 이전과 동시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기대만큼 시청률이 오르지는 않고 있다. 시청률 향상방안은 어떤 것인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YTN은 뉴스전문채널인 만큼 뉴스란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시청자의 신뢰성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속한 뉴스, 공정한 뉴스, 품위 있는 뉴스로 경쟁력 있는 뉴스를 만들 때 신뢰성이 쌓여 자연 시청률은 올라가리라고 본다. 또한 균형감각있는 바른 보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시청률을 올리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5. 오랫동안 회사 내에 부서 이기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부서원 개인간에도 따뜻한 정으로 맺어져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풍토가 조성 됐으면 한다. 지역팀간에도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강한 뉴스를 만들고자 하다. 아울러 국간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YTN이 살맛나는, 일할 맛 나는 일터로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좋은 뉴스가 나오고 좋은 뉴스는 YTN의 매체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언론 매체 종사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부족하나마 도덕성을 지키며 사심 없이 보도국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앵커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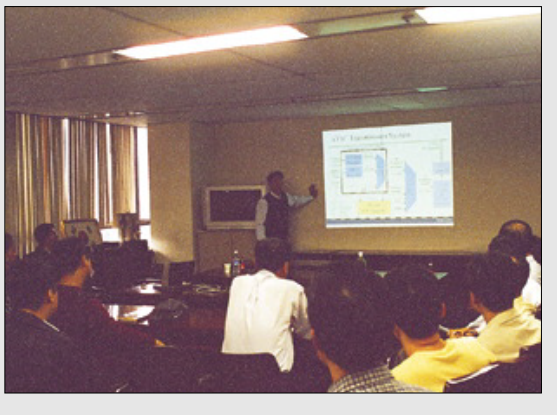
회사는 내년 3월 서울 남대문로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제 2창사를 함께할 신입 · 경력 앵커를 모집하기로 하고, 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13일부터 YTN 홈페이지를 통해 1주일간 원서를 접수한 결과 1,172명이 지원했다. 1차 오디션, 필기시험을 이미 마쳤고, 앞으로 2차 오디션, 토론과 면접 전형 등을 거치게 된다.

채용예정 인원은 신입사원 3명과 경력사원 2명으로 경력직은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된다.

방송기술세미나

YTN 방송기술인협회(협회장 김성태)는 10월15일 8층 대회의실에서 방송기술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텍트로닉스(주) 신화철 차장이 강사로 초빙돼 MPEG2 디지털 영상압축기술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MPEG2 디지털 영상압축기술은 디지털방송에서 여러 채널의 영상과 음성을 압축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특종상 금상 취재기 - 에이즈 혈액, 수혈과 의약품 원료 사용

끈질긴 취재 끝에 낚은 대어
– 에이즈 혈액 수혈비상 –

김 승 재 (사회 1부)

우선 두 달 연속 특종 금상의 영광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달 정몽헌 회장 투신자살 특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다가온 특종이었다면 이번 "에이즈 혈액, 수혈과 혈액 제제 사용" 보도는 힘들고도 끈질긴 취재 끝에 얻어진 특종이어서 내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에이즈와 혈액 문제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할수록 그동안 우리 언론이 혈액 관리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느끼게 됐고 그래서 기사를 써나가면서 취재의 보람이 컸다.

혈액 관리 문제를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 보건당국과 적십자가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일을 해왔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다. 일련의 보도가 그들에게 과거의 타성을 벗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피' 취재는 정말이지 '피 튀기는 취재' 의 연속이었다. 전문분야라서 열심히 공부해야 했고 전문가들만큼이나 알고 취재를 해야 비로소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취재를 하면서 엄청난 가설을 세워놓고 흥분했다가 실망하기를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복잡한 미스테리 마냥 혈액 문제는 나를 강하게 유혹해왔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세운 가설들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나 빨리 취재를 끝내고 싶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물론 그럴 수 없었다.

8월말 처음 세 편의 보도가 잇따라 나갈 때 거의 잠도 못자고 흥분에 들떠 취재를 강행하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국립보건원과 대한적십자사가 취재 과정 보여줬던 교묘한 거짓말과 은폐는 이후 취재과정에서 내게 진실을 밝혀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의혹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기사를 쓰려다 보니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수사를 한다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다.

두 달 넘게 계속 취재하면서 적지 않은 리포트를 했지만 아직도 쓰지 못한 기사가 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쓸 것이다. 혈액 문제 취재를 하면서 무엇보다 신세를 진 이들은 사회부 경찰기자 동료들이다. 당시 경찰기자 바이스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기자 업무를 등한시하고 '피에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김종균 캡과 후배 경찰기자들의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그때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 번 전한다. 그리고 내가 취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데스크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끝으로 집에서 까지 온갖 자료를 펼쳐놓고 고민하던 나를 옆에서 묵묵히 도와준 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종상 동상 취재기 - 북부경찰서, 취객 보복 폭행 사건

수습기자, 낙종 딛고 특종 영광

송 세 혁 (사회1부)

9월 29일 오전 7시쯤. 정유신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취객들 패싸움을 말리던 경찰관들이 맞은 일이 있는데 알고 있냐는 것이다. '아! 물을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 내렸다. 대한매일에 기사가 나왔던 것. 개편된 지구대 제도로 경찰 출동시간이 지연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선배는 당장 지구대로 가서 취재하라고 지시를 했다. 더불어 CCTV에 찍혔는지도 확인해보라고 했다.

북부 형사계에 가서 당직일지를 확인해 보니 6일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북부 서부지구대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지구대 직원들도 이미 기사를 본 탓인지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묻자 지구대 직원들은 자신들의 출동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렸다며 변명을 늘어놓기에 정신이 없었다.

신문기사에는 25분이라 나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내가 CCTV가 있냐고 묻자 경찰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래서 요즘 공권력 경시풍조와 관련해 취재하러 왔다며 우선 안심을 시켰다. 또 정확히 출동시간을 확인해보자는 제안에 지구대 직원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치부를 보여줬다. 자신들의 출동시간부터 취객들을 파출소로 데려오는 시간까지의 타임레코드를 가리키며 10여분밖에 출동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누차 강조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다. 취객들을 끌고 들어오던 경찰들이 이 사람들을 마구 때리는 것이 아닌가.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자신들도 조금 찜찜했던지 CCTV를 중단시켰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정말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라며 말을 하자 그들도 안심이 됐던지 또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카메라기자 선배와 동기가 도착해 CCTV 등을 촬영한 것이다.

솔직히 이때까지도 내가 취재한 기사가 특종이 될 줄은 몰랐다. 회사에 돌아와서도 기사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흘렀고 여러 선배들의 조언으로 마지막 제 위치의 기사로 태어날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간 뒤 방송 3사에서 CCTV화면을 받아가기 위해 연락이 왔다. 또 많은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1시간이 멀다하고 나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심지어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기자를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협박성 글까지 올라왔다.

아직 수습도 못 끝냈는데.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글 서두가 '난 경찰은 아니지만 또는 경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경찰 냄새가 물씬 풍겼다. 물론 좋은 내용의 글들은 아니었지만 내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것을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경찰이 싸움을 말리다 폭행당했다 해도 보복폭행을 한 것은 분명 잘 못된 일이다. 특히 피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면 정도를 넘어섰다. 사회의 잘못된 점을 감시하고 고발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내 몫일 것이다.

물론 내 기사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 경찰들을 생각하면 약간은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런 감상에 젖는다면 어떤 기사도 쓸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첫 입방식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건 정유신 선배를 비롯해 김준영 선배와 김종균 캡, 김익진 차장까지 기사가 완성될 때까지 아낌없는 충고와 수정을 해줬기 때문이다.

또 이번 상은 CCTV와 여러 화면들을 촬영해주고 조언을 해준 김태운 선배와 동기 이동규의 몫이 크다. 이외에도 편집부 선배들과 앵커 선배들이 없었다면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항상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심에 서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

돌발영상 제작기

'돌발' 에도 원조가 있다?

베스트 돌발 3

최근에 가장 공들여 만든 것(10/21)
노트북도 수용하지 못하는 국회법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색깔 시비' 처럼 구태나 당략에 얽매여 있는 우리 국회 수준을 실랄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구성. 마지막 한 국회의원이 "보수 꼴통 국회"라고 하는 말은 곱씹어 볼 만하다.

가장 엽기적인 장면(8/19)
민주당이 분당으로 치닫는 과정 속에서 한 여성 당직자가 '자기 편' 의 발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하이힐을 휘두르는 장면은 돌발영상 100편 중 가장 엽기적인 장면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추억의 돌발영상(6/12)
지난 6월 소속 의원이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가면서 자신을 비난하자 그에 대한 분노를 극도로 삭여가며 내뱉은 한마디 "배운 덕에 욕이 안나와. 나쁜 놈들 같으니" 초기 돌발영상의 최고 인기작으로 꼽힌다.

등록실을 지키는 사우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다. '엔딩 영상'! 뉴스 퍼레이드 초기 시절, 앵커 클로징 멘트 뒤에 배치했던 영상인데 당시 마땅한 이름을 찾지 못해 이름은 포기했다. 그래도 배경음악을 등록실 디스크에 저장할 때나 런다운에 항목 표기를 할 때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붙인 것이 '엔딩 영상' 이었다.

굳이 뿌리를 따지자면 '엔딩 영상' 이 '돌발' 의 원조인 셈이다. 그러나 '엔딩 영상' 은 사실 '영상' 이란 것 말고 이렇다할 성격 규정이 안돼 있었다.

그런데 당시 CP였던 신동윤 부국장과 송경철 앵커가 '말' 을 살리자는 제안을 했다. 일반적인 보도 영상과는 좀 달리 가자는 뜻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3월 개편 첫 주의 일인 것 같다. 그러고도 달포 정도, 이라크전 특보 기간을 빼면 한 스무날 정도의 '실험 기간' 을 거친 뒤 정확히 4월 28일부터 '돌발영상' 이란 이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다.

'돌발' 은 '도발' 이다!

왜 돌발인가? 사전에 나온 뜻은 '어떤 일이 뜻밖에 갑자기 일어남' 이다. 돌발영상에 담긴 세상의 모습은 '뜻밖에 갑자기' 일지언정 '감출 수 없는 본질' 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돌발' 이 '역설' 이라고 꽤 멋진 풀이를 해주기도 했다. '돌발' 적이어야 '본질' 적일 수 있다면 그 현실은 얼마나 왜곡된 것인가! 그 왜곡된 현실을 향한 도발…. 좀 거한 듯도 하지만 궁리 끝에 찾아낸 돌발의 지향점이다.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돌발에서 돌은 돌石, 발은 발足이다. 돌 던지고 발로 차고…. 도발에 필요한 무기쯤으로 해두자.

'돌발' 은 '빨대' 와 함께 만든다?

'돌발' 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뭐니뭐니 해도 꺼리 찾기가 가장 힘들다. 기사도 보고 정보 보고도 뒤지고 하지만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현장 기자로부터의 '제보' 는 가뭄에 단비보다 달다. 스스로 '빨대' 임을 마다않는 분들께 고마울 따름이다.

'돌발'은 언제까지?

인터넷으로 돌발영상 다시보기가 가능해진 지는 얼마 안 된다. 돌발영상 몇 달 치가 8월 초 한꺼번에 실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7월 말쯤인가 디지털 YTN에 파견 가있는 장기영씨로부터 홈페이지에 싣겠다는 통보가 없었다면 돌발영상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루하루 '맨땅에 헤딩하는 식' 으로 만들어 가는 버거움은 둘째 치고라도 불특정 다수의 눈과 귀가 주는 이리도 생생한 부담과 초조… 그리고 그 당시로는 쓸모없었던 자료 정리와 글쓰기가 끝내 쓸모없는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기저기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생기고 사보에까지 나오는 '영광' 을 누리고 있으니 지금은 솔직히 '기분 짱' 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조직원은 조직을 향해 '가능성' 을 던질 뿐… '가능성' 을 '조직의 열매' 로 만드는 것은 '시스템' 즉 조직의 몫이다.

'노돌발' 이라 불러다오!

뉴스 퍼레이드의 한 코너로 출발한 돌발영상은 가을 개편을 통해 영역을 16시 뉴스 와이드로까지 넓혔다. 이와 때를 같이해 개인적으로는 '뉴스 퍼레이드 PD' 에서 '돌발영상 PD' 로 '전직' 했다. 돌발영상이 독립 선언을 한 셈이다. 이 참에 내 호칭도 정리하고 싶다. 그동안 주변에서는 나를 퍼레이드PD, 돌발PD 등으로 불러줬다. 돌발과 관련한 호칭으로 국한해서는 노돌발, 돌발이 등이 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불리면서 '에너지' 를 전이 받는다. '에너지' 를 주시는 분들께 부탁이 있다.

"노돌발이라 불러주세요."

이유는? 그냥 제일 마음에 든다.

노 종 면 (편집 2팀)

'가화표무유한공사' 설립 계약식

"ACE와 태극망을 타고 대륙으로"

천안문 광장을 지나면 어마어마한 위용의 '21세기 국가대극원' 건설현장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 뼈대만 갖춰져 있지만 2005년이면 세종문화회관 4배 규모의 대극장이 베이징 한 복판에 세워지게 된다. 수도의 서쪽 번화가 시단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메가박스' 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베이징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려는 중국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외국 투자자들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의 공연장은 이미 천여 개에 달한다. 연간 공연 횟수만 해도 2만 회에 육박하고, 평균 입장객이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팽창 속도에 더욱 힘을 불어 넣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일류 수준의 공연장과 첨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 베이징의 공연 시장규모가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는 세이의 법칙을 감안한다면 이 통계치는 상당한 편차를 발생시킬 것이며 여기에 올림픽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숫자일지도 모른다.

이 같은 공연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티켓 구매방식은 아직 구태의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티켓 구매의 절반 이상이 전화 예매에 의존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구매는 5%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베이징시 입장에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 티켓을 포함한 티켓판매의 전산화 통합작업을 시급한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그 임무를 YTN의 전략적 파트너인 가화그룹에 부여했다. 가화측은 급기야 YTN에 사업 제휴를 공식 제의했고, YTN은 이 분야에 경쟁력 있는 NHN과 함께 시장조사를 거쳐 함께 투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지난달 22일 NHN과 공동출자로 일종의 지주회사인 '태극I&E' (태극 Internet & Entertainment)가 탄생했으며, 이어 같은 달 28일 현지 사업주체인 '가화표무유한공사' 설립을 위한 계약식과 기자회견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 지난 7월 중국내 방송프로그램 유통을 전담할 현지 법인인 '법아연합문화자순유한공사' (A.C.E.)를 세운 지 석 달여만에 이룬 또 하나의 결실이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 중국 주요 신문 문화면의 사이드 탑을 장식했고, CCTV가 표완수 사장에게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을 정도로 중국 언론의 관심은 각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이 순탄치만 않았듯 앞으로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잠재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뚝심은 물론 장기적인 경영마인드와 치밀한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YTN의 차이나 프로젝트는 2보 전진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웬 온라인티켓사업이며, 왜 중국시장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출발선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 뉴스 콘텐츠 생산만으로는 YTN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고민 끝에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으로 시선을 돌렸고, 한국 시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대륙에 힘들여 발을 내딛었다. 이것이 차이나 프로젝트의 시발점이며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그동안 회사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MPP 전략이 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ACE와 태극망의 출범은 대륙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판매대에 올려놓을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이다. 고부가가치 엔터테인먼트 콘테츠를 제작하고 판매할 인력과 인프라가 서둘러 갖춰져야 한다. 이때 비로소 중국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기회는 결코 결단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교 준 (중국사업팀)

제 5회 YTN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 총평

회를 거듭 할수록 발전하고 있는 영상공모전

이번 제5회 전국 대학생 영상 공모전은 전국 43개 대학에서 73편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소재와 주제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각 작품마다 소재와 주제가 다양했으며 작품에 대한 열정의 땀방울이 흠뻑 젖어있는 영상제작 작업의 결실들이었다.

국내 전국 규모의 대학생 영상공모전 가운데 '전국 영상공모전' 이 회를 거듭 할수록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번 출품작의 요건은 '경기도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생활 속의 환경', '잊혀지는 기억들' 의 세 가지 주제 중 한 주제를 선택 하도록 되어 있었다. 많은 출품 작품들 가운데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매우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었다.

제1회부터 심사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이번 제5회 심사과정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전국의 참가 대학과 출품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지난 제4회때 24개 대학에서 53편의 작품이 출품된 것에 비하면 참가 대학이 무려 두 배로 늘어난 점을 미루어 볼 때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작품의 질적 수준과 제작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주제와 소재의 다양성이다. 그만큼 학생들의 주제 의식과 사물을 조망해 보는 안목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영상분야 전공이 아닌 학생들의 출품이 늘고 있다는 현상이다. 이는 영상시대 도래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번 심사는 기획력과 전체 구성력, 편집 구성력으로서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했다. 이 세 분야를 기준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심사로는 기획 분야에서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한 주제 선정에 접근한 소재와 메시지 가치성에 대한 비중과 전체적인 구성력으로서의 논리성 그리고 영상, 음향, 촬영, 편집 구성력에 대한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했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어떤 허구나 가공이 아닌 사실(fact)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 또는 기록의 나열, 배열, 혼합이 아니라, 사실을 재구성, 재해석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고력과 가치관, 지식, 정보를 부여함으로써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캐내어 기획의도에 맞게 메시지와 감동을 재창조해 내는 작업이다. 영상 콘텐츠가 'One Source-Multi Use' 에 의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문화 정체성 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특히 보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도약대 역할을 하게 될 전략 산업인 것이다.

WTO 등 개방 압력과 24시간 무차별적으로 우리 안방에 침투 해오는 해외 위성방송과 뉴미디어에 의한 영상물로 이미 국제간의 문턱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제는 경쟁력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를 대비해 미래 영상산업을 주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 영상 콘텐츠 계를 선도해 나갈 역군을 배출해 낸다는 차원에서 전국 대학생 영상공모전은 행사의 직접적인 취지나 목적 이상의 성과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최 충 웅 교수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최우수 작품상 「아버지의 울림, 북」제작기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북 제작자 임선빈씨

임선빈 선생님과 처음 만난 것은 다큐멘터리를 준비한지 보름정도가 지나서였다. 달랑 전화번호 하나만 들고 선생님을 만나러 안양으로 향했다. 포기할 때 하더라도 일단 내가 할 얘기는 다하고 나와야 되겠다 싶어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다.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말이다. 그런데 열쇠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 내 얘기를 들으시더니 뜬금없이 나의 신상에 대해 물으셨다. 학교와 가족, 그리고 고향은 청주라고 말씀드리자,

"같은 고향 사람인데, 내가 또 도와 줘야지."

다행히도 선생님은 나와 동향이셨다. 지연의 힘으로 일은 시작되었다. 촬영이 이루어 졌던 2주간 학교가 있는 조치원과 안양을 이틀에 한번씩은 오갔다.

촬영 첫날, 점심시간이었는데, 같이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다. 북공장에서 멀지 않은 해장국집으로 갔다. 선생님은 뼈다귀 해장국을 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셨다. 거렁뱅이로 살던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자체로 기가 막히게 각색된 드라마였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한 많은 인생 얘기는 끝이 없었다.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던 차안에서 문득 생각난 건데, 나는 판소리에서의 고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리는 선생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옆에서 장단이나 맞춰주고 '얼쑤', '그렇지' 처럼 흥만 돋우면 되더라는 것이다. 선생님은 당신의 얘기에 당신이 흥에 겨워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셨다. 나는 다만 그것을 듣기만 했다. 결과로 보자면 내가 개입하고 끌고 가려던 예전보다 훨씬 좋았다.

촬영이 끝나고 한 달 동안은 시간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야 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자면 러닝타임 30분도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 16분 정도에서 절충안을 찾은 셈이지만 말이다. 편집을 끝내자마자 DV6mm테이프를 들고 안양으로 달려갔다. 너무 짧은 러닝타임에 겉핥기식인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만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도리어 잘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시면서 격려해주셨다.

두 달 남짓의 제작기간동안 내가 선생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작은 테이프 하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은 주셨다는 생각이 든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했다. 좀 더 진솔한 태도로, 좀 더 가치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한 여름이었다고 생각된다.

김 영 섭 (홍익대학교)

YTN 가족 -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YTN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조 동 성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YTN시청자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한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간헐적으로 YTN을 청취하던 단순한 시청자였는데, 이제는 YTN을 보면서 무엇인가 고칠 점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 TV보는 재미는 다 잃어버린 셈이다.

지난 1년 동안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 시청자위원회에서 YTN의 뉴스 앵커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앵커들의 의상, 헤어스타일, 동작, 스피치 등이 현저하게 개선된 것을 보면서 즐거웠다. 또, 하루 평균 0.5-0.6% 수준에 있던 YTN 시청률이 지난 4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하루 평균 1.669%, 순간 시청률 4.331%를 기록했을 때에는 저절로 "야호!"하는 환호성이 나왔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시청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 YTN이 케이블TV 방송사 중 시장 점유율에서 1위는 물론, 공중파 3사와의 뉴스 경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권위있는 뉴스전문 방송사들과 비교해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각오를 해본다.

YTN이 추구하는 비전을 "업계 1등"이라고 상정해볼 때, YTN은 비교 대상인 국내 케이블 TV 방송사들, 공중파 3사, 세계 각국의 뉴스전문 방송사들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 따라서 각 경쟁자에 대한 경쟁전략도 제각기 달라야 한다.

첫째, 국내 여타 케이블 TV 방송사와의 경쟁에서 YTN이 누리는 강점은 뉴스전문 방송사로서 가진 시청자들의 높은 사회적 수준, 방송사의 고급스런 이미지, 그리고 위기 시에 시청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독점적 위치를 들 수 있다. YTN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고객에게 전문화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격 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KBS, MBC, SBS로 구성된 국내 공중파 3사와의 경쟁에서 YTN이 가진 강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틈바구니에서 뉴스를 내보내야 하는 3사와 달리, 24시간 뉴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시간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YTN은 3사가 시간제약 때문에 다룰 수 없는 뉴스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분석과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YTN은 국내 방송사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국의 CNN과 폭스 채널, 영국의 BBC, 일본의 NHK와 같이 뉴스의 공정성과 신속성 면에서 권위를 인정 받는 세계적인 방송사와의 경쟁에서도 차별된 모습을 가지고 세계 방송산업 지도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YTN이 내놓을 수 있는 강점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역동성, 한국민이 가진 근면 성실성, 그리고 YTN자체가 가진 우수한 구성원들의 단결심과 기술력을 들 수 있다.

이제부터 YTN가족이 똘똘 뭉쳐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노력해 나간다면 옛날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던 나다니엘 호손의 "위대한 바위 얼굴"을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에 새길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으며, 본인 역시 YTN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YTN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대장정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사옥 추진위 일본 출장기

디지털장비, '소니냐 파나소닉이냐'

호텔에 여장을 풀 여유도 없이 check-in을 마치고 바로 TBS로 향했다. TBS는 지난 98년부터 뉴스취재용으로 파나소닉사의 취재 편집장비(DVCPRO 50 포맷)를 도입하여 사용 중에 있었다. TBS에서 파나소닉장비를 도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테이프 때문이며, 파나소닉의 테이프는 메탈형식이어서 반복사용에 따른 화질의 열화가 적고, 테이프 크기가 작은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었다고 한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NHK와 5개 민방 중 유일하게 파나소닉 장비를 취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업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촬영기자의 얘기를 빌리면, 장비의 안정성, 화질 등 운용면에서는 Sony 장비와 차이가 전혀 없으며, 공동취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Sony사의 HD카메라 1대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도국 영상자료실에서는 테이프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인해 자료실의 공간부족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에는 NHK 아카이브 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2003년 2월에 도쿄인근의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SKIP 시티내에 준공됐다. 현재 NHK 내의 모든 방송자료를 테이프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운용방법은 시부야의 NHK 본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아카이브 센터에서 테이프를 찾아 Cart Machine을 이용한 전송장치를 통해 본사로 자료를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TBS와 NHK아카이브센터 방문목적은 방송현장에서 파나소닉 장비가 얼마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장비의 안정성과 경제적인 부분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재현장에서 테이프기반의 자료교환이 별로 없고, 자료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사 송출실에서 동경타워 중계소를 경유하여 타사로 전송하므로, 각 방송사간에 취재장비의 포맷이 전혀 달라도 취재나 자료 Pool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

오후에는 파나소닉 신요코하마 공장을 방문. 현재 파나소닉에서 개발 중인 SD 메모리 카드를 이용한 취재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의 방문목적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파나소닉의 경우에는 가전제품 부분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송용 장비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카메라, VCR 등 단품위주로만 공급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Total Digital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본 경험이 없었다.

방문 사흘째 Sony 후쯔기공장을 찾았다. 현재 베타버전 테스트 중인 광디스크를 저장매체로 사용한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협의에서 우리는 준비해 간 Total Digital 방송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하고 저녁에 호텔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했는데, Sony측에서는 해외 여러 방송사에 소니사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Total Digital 방송시스템을 납품한 실적이 많으며, 한국에서는 YTN을 첫 번째 site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를 방문해, 전체적인 업무흐름(Work flow)을 분석한 다음, 실제적인 제안을 하기로 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오후에는 도쿄 앞바다를 메워서 만든 신도시 오다이바(台場)의 파나소닉 방송센터를 방문하여 파나소닉장비로 구성된 방송시설을 견학했다.

3박 4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방송현장과 메이커를 방문해 각 메이커의 장, 단점과 방송장비의 포맷을 비교 분석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인함으로써 디지털방송장비 도입 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 용 화 디지털기획부장

프로그램 탐방 - '과학과 미래'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한 국가의 과학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미래가 밝다는 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낙후된 과학과 뒤처진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의 앞날은 등대도 없는 깜깜한 바다를 헤메는 난파선처럼 실로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에 있어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려 20배, 일본이 10배나 되고, 연구원 한 사람당 연구 개발비도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두 배인 20만 달러나 된다는 통계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현실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

'뿌린 만큼 거둔다' 라는 말이 더없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지난 3월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데일리 과학 프로그램인 YTN '과학과 미래' 는 '과학' 하면 알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 유치원생부터 칠순 할머니까지 누구나가 과학을 즐기는 이른바 '과학 대중화 시대' 를 앞당기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한다.

방송된 지 6개월을 넘긴 '과학과 미래' 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시청자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해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앵커를 비롯한 출연진 교체를 포함한 전격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의 핵심은 '요일별 특성화와 전문성 강화' 다. 먼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 요일 특성에 맞춰 시사성 있는 내용을 전진 배치하고, 최신 디지털 문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심층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화요일은 과학 프로그램은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고자 참신한 리포터들의 톡톡 튀는 진행으로 과학 현장을 찾아간다.

수요일에는 선진국의 우수 과학 기술 소개와 함께 한국 방송사상 처음 시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네마 사이언스' 를 한층 강화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즉, 지금까지의 단순히 영화 장면의 과학 원리를 분석하고 옥의 티를 찾는 포맷에서 탈피해 여러 편의 영화에서 한 가지 주제를 찾아 심층 분석함으로써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요일 '사이언스 초대석' 에서는 과학 기술계 저명인사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널리 초빙해 그들의 입을 통해 듣는 생생한 과학 이야기도 전해준다. 한 주를 결산하는 금요일 '과학 스페셜' 다큐멘터리 시간에는 항공 우주, 나노, 바이오 등의 '첨단 과학' 과 함께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과학 소재를 적극 발굴해 한층 더 흥미를 높일 계획이다.

한 정 호 (제작 2팀)

〈요일별 내용〉

월	사이언스 매거진	한 주간 과학기술계 소식
	코드명 디지털	최신 디지털 문화 소개(6mm)
	사이언스 포커스	첨단 과학기술 집중 분석
화	사이언스 X파일	생활 속 과학, Q&A 방식으로 설명
	과학ⓝ 조이	생생한 과학현장(전시회) 탐방
수	시네마 사이언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과학 원리와 오류를 찾아 분석
	사이언스 토픽	최신 해외 과학기술 소개
목	사이언스 초대석	과학기술계 저명인사와 화제의 인물 출연, 대담
금	과학 스페셜	정통 과학 다큐멘터리

〈방송 시간〉

월~금 08:30, 17:25, 22:30, 02:30

■ 새로 선보인 프로그램

「클릭! 자동차 생활」

천만 자동차 시대를 넘어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만의 멋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YTN이 마련한 최초의 자동차 종합전문프로그램이 바로 〈클릭! 자동차생활〉이다.

이 프로그램은 슈퍼모델 출신 이화선씨가 진행을 맡으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2차례씩 방송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나 독특한 자동차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들을 밀착 취재한 'Enjoy 자동차인생'.

인터넷과 자동차의 만남이 가져올 미래의 자동차는? 또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의 개발 추세 등 국내외의 신차와 명차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신차, 명차 갤러리'.

한 주간의 자동차 관련 소식과 중고차 시세를 정리한 '자동차 주간 뉴스'.

자동차에 관한 최신 정보와 다양한 상식을 전문가의 설명으로 들어보는 '자동차 A to Z',

그리고 자동차 자가 정비 요령을 알려드리는 '자동차 DIY' 등 5개 코너로 이뤄져 자동차와 관련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의 올바른 선택에서 유지와 점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법률과 보험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위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클릭! 자동차생활〉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동차 생활을 누려보자.

토요일 오전 09:25, 오후 16:25 일요일 오전 11:25, 저녁 19:25